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교내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정된 지금은 사건이 일어난지 2개월이 경과했기에, 일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써 인식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설익은 대응이 오히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우려해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기피하는 현실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정신건강에 대한 교내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비록 본 결의안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느껴질 수 있

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학교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재
검토하고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
니다. 학생과 교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결의
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